"장애는 작은불편…믿음 더 강해요"

신행현장 장애인 세상나들이

"큰 사랑 내게 주신 부처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20명의 삼선승가대학 학인들이 합창한 '부처님이 좋아요'가 수화와 함께 고운 음성으로 울려 퍼지자 지체장애인 박종필씨(28)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다면 하늘에 집을 지을 걸 그랬어요. 이 하늘, 이 행복. 하늘만큼 크게 살래요…'

종필씨는 봉선사에 오면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말 못하고 걷지 못하지만 시를 쓰면서부터 그는 말하고 걷는다. 마음은 언제나 자유롭다. 시를 쓰면서 그는 육신의 장애를 벗는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다. 하물며 오늘 같은 날, 부처님 마음으로 하늘을 품에 안은 날에야.

18일 오전 11시, 남양주 봉선사에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었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부처님 오신날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개최한 '장애인 세상나들이'에 나들이를 나온 것이다. 광림사연화복지학원, 강북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복지관, 김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350여명은 다소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도 마냥 즐거운 표정이다.

종필씨와 삼선승가대학 혜춘스님은 봉선사에 올 때 운전불자연합회 회원의 택시로 함께 왔다. 오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며, 살면서 어려웠던 이야기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했다. 그런데도 혜춘스님은 종필씨의 휠체어를 밀며 연신 말을 건넨다.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군요. 이 분은 신심이 아주 강한 분이래요. 연화복지학원에서는 시인으로 불릴 만큼 글도 잘 쓰신다고 해요."

다른 사람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과 몸짓을 혜춘스님은 어느새 이해하고 설명해 주었다. 스님은 마음을 주고받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행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장애인 세상 나들이 행사에 동참한 20여 삼선승가대 학인들이 수화로 '부처님이 좋아요'를 합창하고 있다.

장애인-봉사자 350명 남양주 봉선사에 모여 서로 정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한마음 되었다

11시 30분 기념법회가 시작됐다. 연화복지학원 원장 해성스님이 기념법회의 삼귀의례를 수화로 봉역하자 윤근(8)이는 황옥선 보살(47)에게 몸짓으로 무엇인가 말을 한다.

"응, 부처님께 인사를 하는 거야. 윤근이도 합장해야지."

황보살은 윤근이의 손을 잡고 함께 합장을 한다. 김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온 윤근이는 정신지체아다. 또래치고는 작은 키에 큰 눈만 멀뚱멀뚱하면서 잘 웃지 않는 윤근이가 오늘은 씨~익 웃는다.

조계사 신도인 황보살은 윤근이의 든든한 후원자다. 황보살은 윤근이에게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라는 부처님 법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복임 보살(46)은 법당 그늘에 앉아 합장한 채 연신 합장주를 돌린다. 2년전 과로로 갑자기 쓰러져 몸 왼쪽부분이 마비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쪽이라도 쓸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긴다.

"모처럼 절에 오니까 좋네요. 아프고 나서는 못왔었는데…, 오늘 법당에서 부처님을 뵙고는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28도나 되는 날씨탓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늘을 찾지는 않았다.

장애인 장기자랑 시간. 몇몇 장애인의 가수 빰치는 공연이 이어지자 분위기가 고조됐다. 연화복지학원 원장 해성스님이 장애인들과 어울려 춤을 추었고, 삼선승가대 학인들의 음성공양이 이어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합장을 한 장애인들의 얼굴은 붉은 빛으로 상기됐다.

이날은 스님들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운불련 회원들 모두 하나가 됐다. 가끔씩 보는 바깥세상을 마음껏 보며, 보고 싶었던 부처님 얼굴을 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생각 한 번 돌리면…

누구나 한순간에 생각 한번 잘못해서 크나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구설수에 시달려 보았을 것이고, 참아야 할 일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겪기도 했을 것이다. 심한 경우엔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일도 있다. 한생각이라는 게 눈 한번 치뜨고 내리뜨는 것 같이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겠지만 면밀히 관찰해 보면 누구라도 한생각이 자기를 구멍이에 처넣기도 하고, 한생각이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운 사람, 마음에 못마땅한 상대가 있다고 해보자. 내가 상대를 볼 적마다 밉다는 생각을 일으키고(혹은 저절로 일어나고) 하는 짓마다를 아니꼽게 생각한다면 그 상대는 날이 갈수록 미워지고 급기야는 서로의 관계를 파탄으로 끝내게 된다. 반면에 그를 볼 적마다 생각을 좋게 돌리고 그의 장점부터 보려 하고 혹은 나도 물정을 몰랐을 때는 저와 같았지 하거나 그 나이엔 나도 그랬었을 거야, 혹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일 거야 하고 생각을 돌린다면 미움은 좀 덜해지고 점차로 감정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생각 한번 돌리니 예가 바로 극락이구나' 하듯이 한생각 탁 트이게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통 대신에 즐거움이 오고 미움 대신에 사랑이 온다.

개미 구멍에 둑이 터지는 수가 있다. 얼른 막아버리면 될 것을 반대로 자꾸 쑤셔대면 마침내는 둑을 무너뜨리는 큰 구멍이 된다. 한생각 돌릴 줄 몰라서 자꾸만 집착한다면 나중엔 스스로 원치 않는 결과와 맞닥뜨리게 된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하는 덕담이 있다. 일년 365일이 늘 쳇바퀴 돌리듯 해서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에게 참으로 반가운 덕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라'는 덕담의 참 뜻은 순간순간에 한생각 바르게 내시오, 그러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하는 데 있다

안경을 바꿔 써라. 붉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천지가 다 붉고, 푸른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온누리가 다 푸르다.

▩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가정은 삶의 안식처 부부 · 형제 서로 존중"

동봉 조령산 흥천사 주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끼리 서로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중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안식처입니다. 고난이 닥칠때마다 한핏줄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준다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도 "부자 · 형제 · 부부 · 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마음이 안정돼 현세에 복과 경사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들이 전날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면 회사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안잡히거나 한 자식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위해주면서 열심히 기도 정진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옵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룩한 뜻을 되새기며 초발심으로 돌아가 가족끼리 단 얼마간이라도 기간을 정해 기도를 해보길 권합니다. 어두운 가정을 밝게 밝히고자 하는데 어찌 용맹스런 정진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다보면 끈끈한 가족애가 생겨 저절로 행복의 열매가 자라날 것입니다.

절에 올때도 따로따로 오질 마시고 가족끼리 손붙잡고 나들이 삼아와서 참배하면 불심도 돈독해지고 가정도 더욱 화목해질 것입니다. 아예 주말 여행을 심산유곡에 있는 사찰로 정해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성지순례를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법당에 들어가 정성스런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촛불을 밝혀 기도 정진한다면 그 모든 공덕은 바로 자신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공기와 경치가 좋은 사찰 자연을 배경으로 두런두런 집에서 못다한 대화도 나눠 보세요. 가정화목의 기본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스스럼없이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 장막에 가로막힌 산과 같습니다.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부모를 잘 봉양하며 처자를 아끼고 보살펴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고 설하신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작금에 깊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대화 없는 가정 행복할 수 없어요

언짢은 일이 계속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살님들 역시 출근하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면 가사일을 할 때도 마음이 산란해 아무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고 가족끼리 사랑이 넘쳐 화목하다면 밖에 나가서도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왠지 모를 자신감과 힘이 넘쳐 잘 해결될 것입니다. 집안이 편해야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 중생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돼서는 안될 중요한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가정파탄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생활고를 면하기 위해 아버지가 자식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술주정을 한다고 나무라는 아버지를 홧김에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신행 캘린더

4월 25일 (수)

■장애우와 구미시민을 위한 연극 및 합창제=구미 · 선산사암연합회는 오후 7시 구미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우와 구미시민을 위한 연극 및 합창제를 개최한다.(054)453-7424

4월 26일 (목)

■조국통일 기원대법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오후 5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조국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02)732-4885

■조계사 불교음악학술 강연회=조계사는 오후 2시 문화교육관에서 '한국불교음악의 역사적 전망'을 주제로 불교음악학술 강연회를 개최한다.(02)720-1390

4월 27일 (금)

■영봉사 해탈선원 개원법회=영봉사 해탈선원은 오전 10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02)2244-2251

■구로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 주민잔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오전 9시 개관 6주년 기념 경로잔치 및 지역주민 어울마당을 실시한다.(02)852-0525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영산재=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오후 2시 종묘시민광장 국악정에서 21세기 지구촌 화평문화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영산재를 개최한다.(02)723-6258

■국립경찰병원 경승 법당 개원 10주년 기념법회=국립경찰병원 경승실은 오후 6시 20분 경승법당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위문 문화공연을 펼친다.(02)430-2555

4월 28일 (토)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부산 봉축위원회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051)867-0501

■KBS국악관현악단 봉축음악회=KBS국악관현악단은 오후 5시 여의도 KBS 홀에서 봉축음악회를 개최한다.(02)723-0440

4월 29일 (일)

■연등축제=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종로, 우정국로, 동대문운동장에서 연등축제를 펼친다.(02)725-6641

■심상 사진전=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心像)은 창립 12주년 및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5월 1일까지 석왕사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032)663-7771

기자 모집

격주간 불교 포교지로 새롭게 태어난 만불신문이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격주간 5만부를 발행하는 만불신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수습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 불교대학 졸업자 우대

경력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주간신문 2년 이상 경력자
- 1965년 1월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전형절차 및 선발인원
1차 - 서류, 2차 - 면접, 0명

접수기간 2001년 4월 30일 까지

접수방법 본사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4월 30일자 소인 유효)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처 및 문의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70-10 문화빌딩 3층 **만불신문**

전화 02)522-0101, 053)756-0101

※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만 불 신 문 사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들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빅-뉴스

피로? 나에게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발냄새 제거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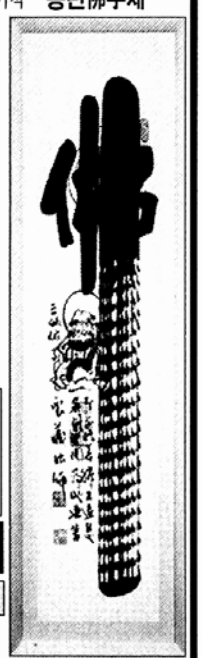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 동 섬 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대 구 특판점 053)252-696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 21. 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탑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